

제 목	국 문	일부 개업의의 우울 및 Burnout정도의 관련요인		
	영 문	The Degree and Related Factors of the Depression and Burnout among Private Practice Physician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신준호, 김군수, 박요섭, 나백주, 손석준, 김병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Jun Ho Shin, Gun Su Kim, Yo Seob Park, Baeg Ju Na, Seok Joon Sohn, Byong Woo Kim College of medicine, Chonnam Univ.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박 요 섭(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v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개업의사의 우울 및 burnout 실태를 조사하고 인구학적 및 직업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밝혀봄으로써 이의 정신의학적 측면에서의 예방대책 수립 및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남자 개업의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각각에게 우울 및 burnout 정도 측정을 위해 SDS(ZUNG,1967) 20개 문항과 MBI(Maslach와 Jackson,1986) 25개 문항,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규명을 위한 대상자들의 인적,직업적 사항들에 대한 18개 설문항목으로 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회송토록 하였다.</p> <p>344명을 최종대상자로하여 자료를 전산 처리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 관련성 특성을 본후 우울은 SDS 평균 점수로 전체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우울정도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 <p>Burnout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ys)과 Varimax rotation법을 이용하여 주요 구성인자를 추출하였으며 MBI 조사표의 신뢰도는 각 항목들의 내적일관도의 추정치인 Carmines theta치를 산출 평가 하였다. 각 구성 인자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점수, 저점수군으로 나누어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burnout의 정도와 관련성을 갖는 변인들을 추출하기 위한 인자특점의 대상자 특성별 단순비교에는 t-검정과 분산 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주요인자들 간의 상호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인자 분석에 의해 추출된 MBI 구성인자를 독립변수로 하고 SDS특점을 종속변수로하여 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우울과 burnout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p>				

### 3. 연구결과

1) SDS 전체 성적의 평균은 38.3으로 전체의 48.8%가 경증이상의 우울을 보였으며 증상의 심각도 순위에서 성욕감퇴, 주기적 기분변화, 절망감이 높은 순위를, 자살반추사고, 변비, 초조가 낮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2) 우울 증상의 내용은 심리적 우울성향, 생리적 우울성향, 정동적 우울성향의 순서를 보였다.

3) 우울과 관련을 갖는 요인으로는 흡연, 커피음용, 수면시간, 수입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나타났다.

4) MBI 인자 분석결과 정서적 탈진, 이인증, 개인적인 성취감, 대인관여, 자기본위의 5가지 인자들이 추출되어 대상자의 48.8%는 정서적 탈진에 대해, 45.3%는 이인증에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개인적인 성취감에서는 45.3%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5) 연령, 가족수, 종교유무, 수면시간, 전문과목, 개업기간, 일일 내원환자수, 일간 휴무일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등이 burnout의 각 구성인자들의 정도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중회귀분석 결과 우울과 burnout는 결정계수 0.48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4. 고찰

본 연구는 개업의사들의 우울 및 burnout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burnout와 우울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임상 의들이 부딪히는 많은 환경적 스트레스의 증가를 예견할 때 그에 따른 burnout 또는 우울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어 향후 비교할만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혼돈요인의 표준화가 선행된 각 변인들의 우울 및 burnou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 등을 통하여 원인요소를 밝혀내고 이를 줄이는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